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모형 연구

김영주 · 星野敏* · 손은일**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 *日本京都大学 · **한국국제대학교 경영학과

A Study on the Drive Model of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Kim, Young-Joo · Satoshi Hoshino* · Son, Eun-Il**

Dept. of Agricultural Eng.(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

**Kyoto University, Japan*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 This study postulates a study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n th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of a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creation of revenues for the participant groups of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Secondly,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reation of revenues. Fourthly,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didn't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Fifthly, both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didn't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Sixthly, the creation of revenu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is achieved by inducing creation of revenues through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fter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Key words :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Mediation, Policy Model, Promotion Project for Local Resources-based Industry

1. 서론

WTO 및 FTA 체제 하의 무역환경에서는 보다 진전된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세방화(glocalization)전략을 활용하여 가격, 품질,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 ‘세상 유일’한 명품을 개발하고 세계를 향하여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자연산업의 정

보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고유성을 발현한 향토산업 개발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전, 환경 및 문화사업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부존자원에 기초한 지역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여 숨겨진 부존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향토산업을 육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하는 접근 전략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전략 중의 하나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여건을 기초로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 총생산 증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Son, Eun-Il

Tel : 055-751-8384

E-mail : winning21@naver.com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일차적으로 향토자원의 발굴, 사업화 가능성 진단, 시장조사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적 성격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점차 생산·가공·마케팅에 대한 일관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 후 산·학·연 클러스터형 지원체제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때 지역 특색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사업 추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생산·공급되는 농특산물보다는 지역 고유의 제품과 서비스·문화 등을 우선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계획수립 과정의 컨설팅과 사업시행의 측면 지원에 역점을 둔다(이동필 등, 2007).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 당 30억 원 수준, 사업기간 3년으로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을 포괄지원 한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선정하고, 2008년 사업대상으로 3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9년 사업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제출된 120개의 자원조사서를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09).

그러나 현재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 시·군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해 내고 이를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사업 종료 이후의 자생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및 평가 지표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 요인 등을 지역정책에 승계하여 성공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방향 및 목표를 검토하여 정책모형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행 요인으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및 소득창출을 선정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부터 각각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향토산업은 주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향토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폭 넓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이관률, 2010). 이관률(2010)의 연구에 의하면 향토산업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성공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옥선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향토산업육성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향토산업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산업화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같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이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국내 지역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해온지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를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 등을 선정하여 정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과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관률(2010)은 향토산업 관련정책은 지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진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써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부자원의 유입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외부자원의 유입은 향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과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병오, 김태연, 2009). 즉, 전국에 걸쳐 확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향토자원을 선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박주영과 송미령(2007)은 낙후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

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에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추진체계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활력사업의 대상 지역은 대부분 산업 쇠퇴와 인구감소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제반 여건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들인 만큼 지역 스스로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상환(2005)의 연구에서는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어온 지역을 자생적인 발전동력을 찾아 지역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자립적이고 활력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활력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신활력사업 시행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도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창출을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갑과 임용택(2011)은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이 연계된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여 개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향토자원으로 인한 소득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소득창출은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의 선정과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일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선행 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변수들과 관련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 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상의 선행연구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옥선 등(2007), 이관률(2010),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09)의 선행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향토자원 선정의 하위차원으로 향토성, 기반성, 산업성을 선정하였다. 박주영과 송미령(2007), 노상환(2005), 손은일 등(2009)의 선행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혁신역량 강화의 하위차원으로 교육사업, 네트워크 사업, 국내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자율성을 선정하였으며, 추진체계구축의 하위차원으로는 추진체계 구성사업, 추진체계 활성화사업을 선정하였다. 노상환(2005), 이정갑과 임용택(2011), 손은일 등(2009)의 선행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위차원으로 가공업체 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외부지원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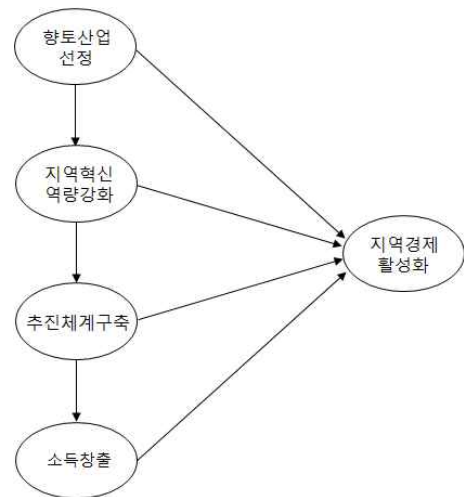


Figure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I.

2.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 선정, 지역혁신 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향토자원 선정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추진체계구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추진체계구축은 소득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향토자원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소득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85개 사업단 중에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향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우수사례 사업단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통계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본 연구의 자료는 현재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각 시군에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응답 의뢰를 하고,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업식 설문지법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지는 2012년 3월에 280부를 배부하여 총 16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실증조사의 변수들은 요인으로 규합하는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따른 각 요인의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도의 평가와 경로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 5.0을 통한 공변량 구조분석 방법(SEM)을 이용하였다.

5. 설문지 구성

첫째, 향토자원 선정은 향토성, 기반성, 산업성 등의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향토성 6개 문항, 기반성 7개 문항, 산업성 8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둘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교육사업, 네트워크사업, 국내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자율성 등의 5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교육사업 8개 문항, 네트워크사업 8개 문항, 국내연수사업 4개 문항, 해외연수사업 4개 문항, 자율성 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셋째, 추진체계구축은 추진체계 구성사업,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등의 2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추진체계 구성사업 6개 문항,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4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넷째, 소득창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은 총 6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공업체 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 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외부지원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8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가공업체 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브랜드화 프로그램 4개 문항, 유통 프로그램 4개 문항, 수출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축제 프로그램 4개 문항, 외부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도농교류 프로그램 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여섯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결혼유무, 연령, 참여형태, 직업분야, 참여기간, 학력, 재직기간의 8가지 문항을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의 81.7%가 남성이고 여성은 18.3%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었다. 기혼자는 87.6%이고, 미혼자는 12.4%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7.1%, 40대가 40.9%, 50대가 37.3%,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이 4.7%이었다. 참여형태별로는 지자체공무원이 28.4%, 운영위원회가 13.6%, 실무추진단이 41.4%, 지역주민(세부사업 참여)이 16.6%였다.

Table 1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38	81.7
	여	31	18.3
결혼유무	기혼자	148	87.6
	미혼자	21	12.4
연 령	30대	29	17.1
	40대	69	40.9
	50대	63	37.3
	60대 이상	8	4.7
참여형태	지자체공무원	48	28.4
	운영위원회	23	13.6
	실무추진단	70	41.4
	지역주민	28	16.6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8	10.7
	6개월-1년 미만	25	14.8
	1년-2년 미만	69	40.8
	2년-3년 미만	35	20.7
	3년 이상	22	13.0
학 력	고졸	28	16.6
	전문대졸	28	16.6
	대졸	82	48.5
	대학원졸	31	18.3
재직기간	1년 미만	17	10.1
	1년-5년 미만	33	19.5
	5년-10년 미만	31	18.3
	10년-20년 미만	42	24.9
	20년 이상	46	27.2

참여기간은 6개월 미만이 10.7%, 6개월-1년 미만이 14.8%, 1-2년 미만이 40.8%, 2-3년 미만이 20.7%, 3년 이상이 13.0%이었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 16.6%, 전문대졸 16.6%, 대졸 48.5%, 대학원졸 18.3%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 10.1%, 1-5년 미만이 19.5%, 5-10년 미만이 18.3%, 10-20년 미만이 24.9%, 20년 이상이 27.2%이었다.

2.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의 검증을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시된 모든 연구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7 이상으로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인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을 이용하였다.

Table 2는 향토자원 선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반성은 7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산업성도 8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향토성도 6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5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64.701%를 설명해주고 있다.

Table 3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사업은

Table 2 향토자원 선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향토자원 선정	기반성	기반성 5	.756	9.440	44.953	44.953	0.892
		기반성 7	.745				
		기반성 3	.724				
		기반성 4	.717				
		기반성 6	.675				
		기반성 2	.656				
		기반성 1	.597				
	산업성	산업성 4	.706	3.037	14.461	59.414	0.899
		산업성 3	.702				
		산업성 5	.684				
		산업성 6	.673				
		산업성 2	.665				
		산업성 8	.660				
		산업성 7	.600				
		산업성 1	.568				
	향토성	향토성 6	.790	1.110	5.287	64.701	0.793
		향토성 4	.744				
		향토성 5	.734				
		향토성 1	.716				
		향토성 2	.701				
		향토성 3	.697				

Table 3 지역혁신역량 강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지역혁신 역량강화	교육사업	교육사업 2	.840	15.325	52.844	52.844	0.943
		교육사업 1	.832				
		교육사업 4	.765				
		교육사업 5	.725				
		교육사업 3	.717				
		교육사업 6	.673				
		교육사업 7	.629				
		교육사업 8	.621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사업 4	.774	2.217	7.646	60.491	0.940
		네트워크사업 2	.732				
		네트워크사업 3	.730				
		네트워크사업 6	.727				
		네트워크사업 8	.683				
		네트워크사업 7	.657				
		네트워크사업 5	.549				
	네트워크사업 1	.524					
	자율성	자율성 4	.866	2.098	7.236	67.727	0.898
		자율성 3	.806				
자율성 5		.778					
자율성 2		.762					
자율성 1		.688					
해외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3	.861	1.284	4.429	72.155	0.904	
	해외연수사업 4	.849					
	해외연수사업 2	.773					
	해외연수사업 1	.694					
국내연수사업	국내연수사업 3	.758	1.078	3.371	75.526	0.916	
	국내연수사업 4	.705					
	국내연수사업 2	.682					
	국내연수사업 1	.581					

8개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네트워크사업도 8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자율성도 5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해외연수사업은 4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국내연수사업도 4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5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5.526%를 설명해주고 있다.

Table 4는 추진체계구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체계 구성사업은 6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추진체

Table 4 추진체계구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구성사업	구성사업 4	.845	7.784	77.836	77.836	0.962
		구성사업 1	.844				
		구성사업 2	.837				
		구성사업 3	.824				
		구성사업 5	.765				
		구성사업 6	.762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2	.864	1.075	7.749	85.586	0.951
		활성화사업 3	.844				
		활성화사업 4	.831				
		활성화사업 1	.773				

계 활성화사업도 4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2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85.586%를 설명해주고 있다.

Table 5는 소득창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체계 구성사업은 6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요인분석결

과 추출된 단일요인은 전체 분산의 61.12%를 설명해주고 있다.

Table 6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업체 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 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외부

Table 5 소득창출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알파계수
소득창출	소득창출	소득창출 6	.851	3.667	61.120	61.120	0.873
		소득창출 5	.800				
		소득창출 4	.782				
		소득창출 1	.758				
		소득창출 3	.752				
		소득창출 2	.743				

Table 6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알파계수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지원 프로그램	수출지원 1	.903	16.410	51.281	51.281	0.972
		수출지원 3	.894				
		수출지원 2	.892				
		수출지원 4	.861				
	도농교류 프로그램	도농교류 3	.848	2.804	8.763	60.044	0.944
		도농교류 4	.829				
		도농교류 2	.823				
		도농교류 1	.722				
	브랜드화 프로그램	브랜드화 2	.816	2.502	7.819	67.863	0.922
		브랜드화 3	.804				
		브랜드화 1	.782				
		브랜드화 4	.701				
	축제 프로그램	축제 2	.899	1.896	5.453	73.316	0.925
		축제 3	.877				
축제 4		.820					
축제 1		.760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가공업체지원 1	.772	1.745	5.645	76.961	0.924	
	가공업체지원 2	.769					
	가공업체지원 3	.716					
	가공업체지원 4	.709					
유통 프로그램	유통 2	.776	1.742	3.220	80.181	0.927	
	유통 3	.768					
	유통 4	.759					
	유통 1	.577					
외부지원 프로그램	외부지원 2	.722	1.166	2.801	82.982	0.946	
	외부지원 3	.715					
	외부지원 4	.691					
	외부지원 1	.688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2	.612	1.030	2.318	85.300	0.912	
	생산농가지원 3	.599					
	생산농가지원 1	.591					
	생산농가지원 4	.577					

지원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8개 요인이 각각 4개 문항씩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8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85.3%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서 AMOS 5.0을 이용하여 전체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잠재적 요인으로 변환시켰다. Table 7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 값들은 $\chi^2=396.007$, $d.f=230$, $p=.000$,

$RMR=.028$, $RMSEA=.066$, $GFI=.913$, $AGFI=.866$, $IFI=.948$, $CFI=.948$ 로 적합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Bagozzi와 Yi (1988)가 제시한 기준(각각 0.7 이상, 0.5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항목들과 구성개념들을 연결하는 표준화 요인적재치가 통계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적이기 때문에($t>1.96$)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Table 8은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상관계수의 95% 신뢰구간 추정치(상관계수 $\pm 2*$

Table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표준오차	t	AVE	복합 신뢰도	적합지수
향토자원 선정	향토성	.689	.020	8.336	.851	.944	$\chi^2=396.007$, $d.f=230$, $p=.000$, $RMR=.028$, $RMSEA=.066$, $GFI=.913$, $AGFI=.866$, $IFI=.948$, $CFI=.948$
	기반성	.807	.017	7.368			
	산업성	.904	.011	4.875			
지역혁신 역량강화	교육사업	.845	.018	7.300	.800	.952	
	네트워크사업	.874	.015	6.783			
	국내연수사업	.843	.018	7.358			
	해외연수사업	.683	.038	8.532			
추진체계구축	자율성	.699	.024	8.472	.903	.949	
	추진체계 구성사업	.893	.014	5.672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902	.017	5.380			
소득창출	소득창출 1	.781	.026	8.471	.721	.939	
	소득창출 2	.736	.030	8.789			
	소득창출 3	.742	.032	8.656			
	소득창출 4	.783	.024	8.224			
	소득창출 5	.778	.031	8.499			
	소득창출 6	.791	.025	8.208			
지역경제 활성화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820	.017	8.257	.776	.965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879	.013	6.729			
	브랜드화 프로그램	.800	.018	8.408			
	유통 프로그램	.852	.020	7.192			
	수출지원 프로그램	.777	.024	8.834			
	축제 프로그램	.744	.028	8.958			
	외부지원 프로그램	.715	.029	8.993			
도농교류 프로그램	.746	.028	8.865				

주) N=169, *p < 0.10 **p < 0.05 ***p < 0.01, 대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간 상관계수(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대각선 위쪽은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Table 8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

구분	평균	표준편차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 구축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향토자원 선정	4.24	0.49		.498	.595	.672	.640
지역혁신 역량강화	3.83	0.59	.706***(.027)		.681	.588	.615
추진체계 구축	4.10	0.64	.772***(.027)	.825***(.039)		.669	.650
소득창출	4.27	0.54	.820***(.026)	.767***(.032)	.818***(.032)		.694
지역경제 활성화	3.90	0.58	.800***(.027)	.784***(.036)	.806***(.035)	.833***(.034)	

표준오차)에 1.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Anderson & Gerbing, 1988)과, Table 7의 각 구성개념 AVE가 Table 8의 대각선 위쪽에 나타난 구성개념 간 상관자승치 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Fornell & Larcker, 1981)을 충족되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4.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각각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chi^2=469.479$, $df=233$, $p=.000$, $RMR=.035$, $RMSEA=.068$, $GFI=.912$, $AGFI=.861$, $IFI=.936$, $CFI=.935$ 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삼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검증 결과는 Figure 2에,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자원 선정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유의한 영향 ($estimate=.757$, $p=.000$)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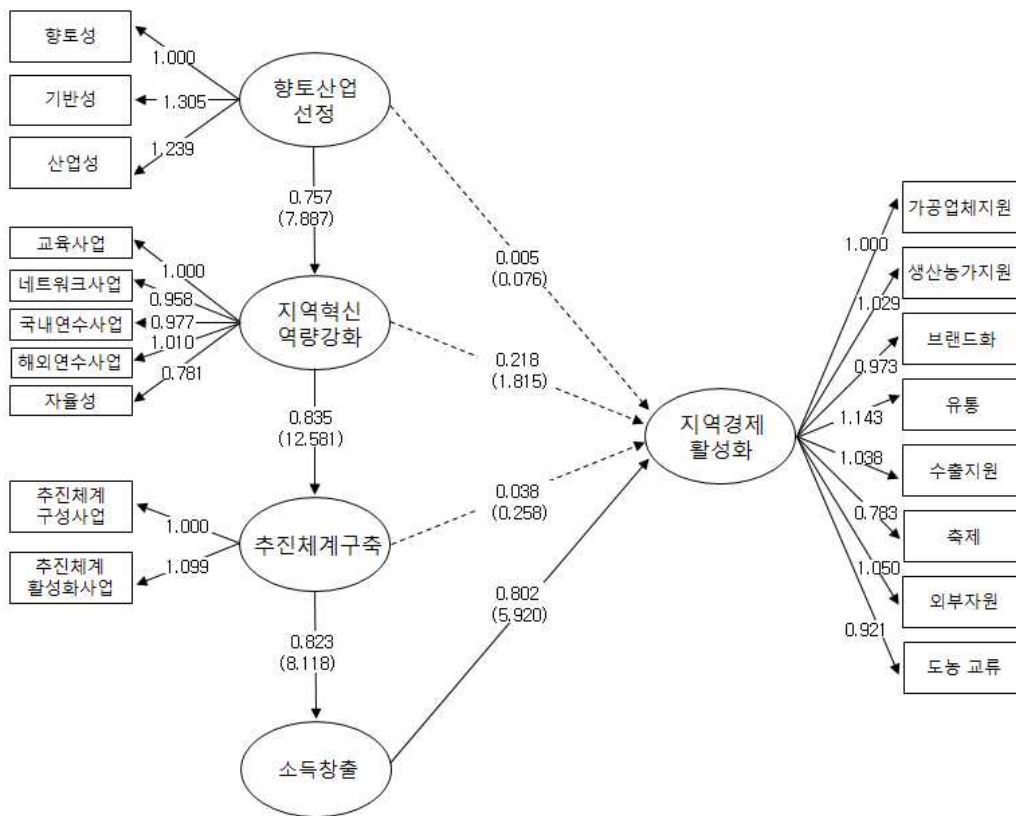


Figure 2 연구모형검증 결과

Table 9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여부
1	향토산업 선정 → 지역혁신역량 강화	.757	.146	7.887	.000	채택
2	지역혁신역량 강화 → 추진체계구축	.835	.069	12.581	.000	채택
3	추진체계구축 → 소득창출	.823	.075	8.118	.000	채택
4	향토산업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	.005	.085	0.076	.940	기각
5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218	.110	1.815	.069	기각
6	추진체계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038	.139	0.258	.796	기각
7	소득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802	.177	5.920	.000	채택

되었다. 둘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추진체계구축에 유의한 영향(estimate=.835, p=.000)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추진체계구축은 소득창출에 유의한 영향(estimate=.823, p=.000)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향토자원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estimate=.005, p=.940)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estimate=.218, p=.069)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여섯째,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estimate=.038, p=.796)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일곱째, 소득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estimate=.802, p=.000)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향토산업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득창출을 이루어낸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개념정립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기초한 정책 방안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주요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라 보고,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행 요인으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및 소득창출을 선정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부터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향토자원 선정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추진체계구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진체계구축은 소득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토자원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곱째, 소득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형으로 향토자원 선정 후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추진체계구축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분석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증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토자원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체계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의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향토자원 선정 → 지역혁신역량 강화 → 추진체계구축 → 소득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행 요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전체적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향후 연구의 선행연구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래의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향토자원의 선정과 이의 특화산업화가 보다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향토자원의 선정기준은 개별농가의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내 총생산의 증진과 같은 지역 전체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자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둘째, 향후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유사한 농어촌지역정책(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단기간의 단편적인 성과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의 결과에 대한 지표를 각 단계별로 점검하여 1차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행하고, 수정·보완하여 2차적으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사업지원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등장 배경, 현장 우수 사례 분석 및 실증연구 분석을 통하여 향토자원 선정, 지역혁신역량 강화, 추진체계구축, 소득창출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추진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신활력사업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사업 등의 농어촌지역정책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지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로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증연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연구를 시도하여 사업마다 다른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모범적인 농어촌 지역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상환, 2005, 신활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창녕군의 사례 -, 경남지역연구, Vol. 11, 29-42.
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실무자 워크숍 자료.
3. 박주영, 송미령, 2007, 신활력사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농촌경제, Vol. 30(1), 83-108.
4. 손은일 외, 2009, S/W중심 농촌산업정책의 성과관리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5. 손은일, 2011, 신활력사업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농어촌지역정책포럼.
6. 안옥선, 김미희, 안윤주, 박한식, 2007,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 -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 농촌사회, Vol. 17(2), 225-267.
7. 이관률, 2010, 향토산업의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의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Vol. 24(3), 33-56.
8. 이동필, 김용렬, 최경은, 강민수,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이병오, 김태연, 2009, 식품산업 클러스터 형성정책과 단계별 발전전략, 식품유통연구, Vol. 26(3), 1-28.
10. 이정갑, 임용택, 2011, 향토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고창군 복분자 천일염의 향토산업화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연구, Vol. 23(3), 55-80.
11.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411-423.
12. Bagozzi, R. P. and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Marketing Science, Vol. 16, 74-94.
13. Fornell, C. and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39-50.

접 수 일: (2012년 7월 5일)

수 정 일: (1차: 2012년 7월 11일, 2차: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23일)

■ 3인 익명 심사필